

군산시, 사드 여파 비켜간다

중자매도시 교류회 성료 사흘간 협력 방향 논의 지속적 소통 저력 확인

청다오, 베이하이, 선양 등 매년 중국 자매우호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해 온 '군산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회'가 올해 제4회를 맞아 군산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행사에는 올 들어 군산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駐)광주 중국총영사관 쑤선위(孫顯宇) 총영사의 참석과 특별 강연을 펼쳐 교류회의 격을 올렸으며 급변하는 양국정세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인 엔타이를 포함 중국 3개(산둥·장쑤·랴오닝)성의 5개 도시(엔타이·청다오·장안·다둥·둥강)가 참가해 한중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중·화·격을 갖춘 21세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한·중 지방정부의 역할



'군산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회'가 제4회를 맞아 군산에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펼쳐지며 성황리에 폐막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류회는 양국 도시 대표단의 발표와 좌담으로 진행되어, 경제·관광 및 복지 등 다방면에서 우수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교류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번 교류회는 주(駐)광주 중국총영사의 적극적인 지원의사와 더불어 차기 개최지로 엔타이시가 선포되었

으며, 경쟁되어야 하는 양국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한중 지방정부간 상생'에 좌표를 두어 진행됨으로써 교류회의 의미가 한 단계 깊어진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차기 개최지 선포를 통해 오랜 벗인 엔타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국가는 국가의 일을, 지자체는 지자체의 일을 하며, 교류

에 있어서는 '신뢰'를 잃지 않고 진심하게 서로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산은 초심을 잃지 않고 중국의 자매우호도시와 함께 호흡을 맞춰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양국 지자체간 공동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선유도 탐방과 시간여행축제 개막식에 참가한 중국 대표단은 "한중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영역의 다양함을 느꼈고, 이 공동분모를 통해 더욱 친척적·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군산시와의 이번 교류회는 여전히 한중 양국이 가까운 이웃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군산은 다시 한 번 중국과의 교류성과를 시민들에게 뚜렷하게 보여줬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군산시의 對중국교류에 있어 한중 지자체간 소통으로 견고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줬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학교 수시 5명 중 1명만 합격

1348명 모집에 6832명 지원 융합기술창업과는 20.5 대 1

지난 15일 마감한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결과가 1,348명 모집에 6,832명 지원으로 5.1 대 1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도 수시경쟁률 4.55보다 0.55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결과이다.

일반전형 5.4 대 1(모집 695명, 지원 3,752명), 지역고교 출신자전형 6.2 대 1(모집 101명, 지원 622명), 특기자 2.9 대 1(모집 52명, 지원 150명)이고, 학과별로는 일반전형 융합기술창업학과 20.5 대 1, 새만금 인재 전형 간호학과 18.8 대 1, 지역고교출신자 전형 경영학과 16.7 대 1 등이다.

수시 모집인원 1,348명은 2018학년도 총 모집인원 1,897명의 72.2%에 해당한다

다. 최근 군산대학교는 입학금 폐지 및 입학전형료(12.6%) 인하 등 수험생을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운영사업, 링크플러스사업, 풍력단지 고급인력양성 사업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유지하는 등 대학의 우수한 교육환경과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 최종합격자는 12월 15일 군산대학교 홈페이지(www.kunsan.ac.kr)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시원서접수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4일간으로, 모집인원은 총 518명이다. 일반전형 가군(실기위주) 58명, 다군(수능위주) 460명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2018년 1월 30일 발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밥맛이 으뜸' 고품질 쌀 생산 팔건어

익산시, 포장심사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품질 좋은 익산 쌀을 만들기 위해 나선다.

시는 9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최고 품질의 원료곡을 선별하기 위해 답마투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46개소 1,508ha에 대해 현지 포장심사(품질심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포장심사를 위해 익산시, 수매 경영체(RPC), 단지대표, 민간심사위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했다. 이품종(이형주 포함), 도복, 병해충, 잡초, 단백질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별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포장의 원료곡은 경영체(RPC)에 수매

하지 못한다.

타마루 및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는 연 초부터 재배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생산단지를 관리했으며, 품종지정을 통한 품종혼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벗겨환원을 실시하고 단백질 함량 최소화를 통해 밥맛이 으뜸인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장심사를 통해 합격한 원료곡을 경영체(RPC)별로 사이로(Silo)를 지정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품종검정, 안전미물, 단백질 함량 등을 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전국 최고의 탐미부 및 기업 맞춤형 쌀을 생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영어원 위문품 전달

이웃사랑 실천 앞장

공무원 노조 전북연맹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일호)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운) 임원진은 1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북연맹 최일호 위원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구 위원장 등 10여명은 이날 모세스 영어원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전북연맹은 매년 전북지역 시군의 복

지시설을 순회 방문하며 봉사활동 및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군산을 찾았다.

최일호 위원장은 "군산을 비롯한 전북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맹 산하 조합원들과 함께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군산시공노조 위원장은 "군산을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전북연맹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공공노역시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국지엠 철수설에 판매 뚝... '심폐소생술'

군산시-군산공장 공동 대응 1인 피켓 릴레이 홍보 견학 등 신뢰회복 만전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장 철수설' 등의 루머로 인한 약세가 겹치면서 극심한 내수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18일 군산롯데마트 사거리 및 극동주요소 사거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발전 실무협의회(위원장: 김용환 호원대학교수)위원들과 군산공장 직원 부인회의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성화를 위한 1인 피켓 릴레이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19일에는 군산시를 포함한 전라북도 차차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견학을 추진하여 직접 눈으로 생산라인과 공정과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전북도와 협의를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8일 군산롯데마트 사거리 및 극동주요소 사거리에서 공장 활성화를 위한 1인 피켓 릴레이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통해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 중 한국지엠 군산공장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생애 첫차 구입을 한국지엠 차량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용목 지역경제과장은 "최근 한국지엠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고 차량 판매가 급감했다"며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인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뢰회복을 통한 내수 판매 확대만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한국지엠 차량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환 한국지엠군산공장발전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든 차량이 실체도 없는 루머로 인해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군산공정의 차량 한 대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은밀한 시선... 몰카 동작 그만"

군산시, 불법촬영 근절 합동점검

군산경찰서는 18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공중화장실 및 편의점, 수유실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는 군산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이 참석해 관내에 피해 사례가 없도록 렌즈형 탐지 장비 및 금속 스캐너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약속했다.

군산경찰은 앞으로도 터미널·역등 교통시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장형·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 1회 이상 합동 점검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예방 홍보 전단지 배포하며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장은 "불법 촬영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신고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

